

적지적 학생시정

독서
파이널
정리
— 너가 틀림
X
그
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수능에 필요한 사고과정만을 압축하고 압축하여 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국어 공부의 길고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한 것이 이 자료를 통해 빛을 받네요. 제가 힘들어한 부분, 주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독서 지문을 토대로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오답 노트 내용을 Ctrl C + Ctrl V 한 것이 아닌, 특정 강사의 스킬을 요약한 것이 아닌, 오직 저만의 실전 감각과 피드백을 모두가 습득할 수 있도록 4페이지에 압축하여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마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자료를 스테이크 썰때 쓰는 포크처럼, 라면에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계란처럼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전지적 학생 시점'의 의미와 수능 국어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제가 이 자료를 만들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평가원이라면, 학생 시점에서 바라보는 학습은 있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입만 받는 친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1인칭으로 보는 것은 정말 과외가 아닌 이상 힘들기에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역사를 쓸 수 있게끔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내자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수능 국어'는 매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평가원이라는 시점을 갖고 닦아 몸으로 체득했다면, 변화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수능 국어 기출 문제가 싹을 틔우는 뿌리라면, 선생님들이 그 뿌리가 울곧게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라난 줄기와 가지만 보아도 저한테는 충분히 자랑스럽고 고맙지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수능 국어'는 여러분께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구요. 따라서, 설사 모르는 어휘가 나오고 처리할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도 수능에서는 해결이 가능하게끔 출제합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거부하거나 찾지 못하는 친구들을 변별해내는 것이 수능 국어의 목적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여유부리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해가며 시험에 임해주세요.

3. 국어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고 밥도 굶어가며 자료를 정성껏 만드는 뒤에는 어떤 힘이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활을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오면 저는 A4용지를 정성스럽게 꺼내들어 한 문제라도 정성을 다해 풀이를 써주고 더 나아가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끝내 국어 시험을 보고 100점이 써져있는 제 시험지는 오히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우는건지 웃는건지 모르겠는 친구를 안아주고 있더군요. 알고보니 친구는 저한테서 받은 피드백을 모두 꼼꼼하게 습득했고, 6등급에서 1등급을 받았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 받는 것보다도 '누군가의 인생 속 역사를 쓰도록 도와준 한명이 되겠다' 라는 그 벅찬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고도 값진 경험인지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강의는 못하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만들고 무료로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것이 저의 시작이자

여러분의 끝이길 바라며,

‘체념’과 ‘포기’ 끝에는
항상 ‘행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행복’이란 절대평가의 대상이 아닌,
잔인한 상대평가의 대상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1. 독서론

- ✓ 지문을 읽되, 범주화는 기본
- ✓ 선지 내용은 지문에 무조건 표시하자
- ✓ <보기>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
- ✓ 5분 안에 끝내라
- ✓ 경향 예측

2. (가) (나) 통합지문

- ✓ 통합 문제의 답 근거는 4번 문제에 있다
- ✓ (가) (나) 지문은 개별 지문이 아니다
- ✓ (가) 읽고 (나) 털기?
- ✓ 8번 <보기> 문제? 겁 먹지말자!
- ✓ 낱말, 문맥 문제는 지문을 읽을 때 해결!
- ✓ 허용 가능 시간은 오직 12~13분
- ✓ 같은 의미, 다른 표현

3. 독해 요소별 대응 전략

- ✓ '독해 요소'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 첫번째 요소: 개념
- ✓ 두번째 요소: 관점
- ✓ 단일 관점/입장은 출제되지 않는다.
- ✓ '관점'은 '개념'이 아니다! (표시는 명확하게!)
- ✓ 관점의 분류

4. 과학·기술·경제 지문의 기본 독해 요소

- ✓ 비례·반비례도 결국 식이다
- ✓ 개념 간 비례·반비례는 연결될 수도 있다
- ✓ 인과관계의 역방향 성립 확인
- ✓ 분류는 결국 범주화의 기초
- ✓ <보기> 상황에 수식 처리하기
- ✓ 복잡한 순서/과정/인과관계 처리하기

「독서 지문 유형별 접근의 비밀」

<독서론> [1~3]

Comment) 짧은 지문으로 이루어진 문제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나, 6월 모의평가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난이도가 한 문제에 집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 무작정 읽고 풀어도 사실 괜찮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한 풀이 체계를 지니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 지문을 읽되, 범주화는 기본

6월은 글 읽기 방법이 출제됐지만, 9월에서는 작문 형태의 글이 독서 지문의 느낌이 살짝 내도록 정제하여 출제되었다.

수능에서 독서론 지문이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로 출제될만한 포인트를 미리 가지적으로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 선지 내용은 지문에 무조건 표시하자

6월에는 워딩 그대로 선지에 출제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는 필자가 책을 읽으며 한 행동들을 일반화한 문장으로 선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약간 더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니, 선지 내용이 지문의 어디쯤 위치하는지 파악하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표시해두자.

✓ <보기>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

6월 모의평가 2번과 같이, <보기> 속 내용과 지문의 내용 사이의 일치 여부 판단을 요구한다면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문장별로 끊어 읽으면서 미리 지문의 무엇과 연결되는지 파악해준다.

✓ 5분 안에 끝내라

독서론 문제의 경우, 선택 과목 15분 이후 5분 안에 풀어주어서 선택 + 독서론이 20분 내로 끝나도록 해준다. 즉, 11시부터는 (가)(나) 통합지문을 풀어내야 한다.

✓ 경향 예측

6월과 9월에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신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외의 지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테니 빠르고 정확하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나) 통합 지문> [4~9]

Comment) 시간 소모가 꽤 큰 구간이다. 이 지문을 앞서 풀어내는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장점으로는 가장 큰 지문을 해결했기에 뒤 지문들을 그나마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어려워서 시간 소모를 많이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 풀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풀고 싶다면 독서 지문들 중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좋다. 지문의 난이도를 가늠해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합 문제의 답 근거는 4번 문제에 있다

우리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지문과 문제를 구성하기 전 계획을 세워보자. (가) 지문과 (나) 지문을 각각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글의 전개 방식부터 고려할 것이다. (가) 와 (나) 지문을 각각 개별적으로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제시한다는 것은, <독서론> 문제에서도 알려준 것과 같이, 하나의 주제의 내용에만 국한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주제의 글을 함께 연관 지어 읽는 것이 평가원의 근본적인 출제 원리이겠다.

따라서 4번 문제에 평가원이 주목하는 글의 통합적 본질을 함유할 수 밖에 없고, 6월 9월 모두 4번 문제의 전개 방식에 나머지 문제들의 답 근거가 내재하여 있다.

지문을 읽고 (가) 와 (나) 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거시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4번 문제의 전개 방식을 확인하고 풀어줄 것을 권장한다.

「4번 문제 → 8번 문제」

4. ⑤ ㄹ :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8.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

「4번 문제 → 5번 문제」

4. ② ㄴ :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음.

→5. ④ 한대의 제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자만(→반응함)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5.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4번 문제 → 8번 문제」

4. ③ ㄷ :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전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제시하였음.

→ 8. ②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①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이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 (가) (나) 지문은 개별 지문이 아니다

(가) 지문과 (나) 지문이 분리되어 있어서 각개격파식으로 읽어나가면서 결국 5번과 8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다. 우리가 지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 문단의 초점과 그 초점들의 상관관계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거시적인 흐름의 파악이다.

그러한 글 흐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 와 (나) 를 관통하는 주제 먼저 찾아보자. 이후에 생선 가시에서 살을 발라내듯, 정보를 하나하나 뽑아주자. 최종적으로 뽑아준 정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이 (가)와 (나)의 연결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 (가) 읽고 (나) 털기?

(가) 먼저 읽고 (가) 관련 문제를 미리 풀어내는 것도 어찌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가)와 (나)를 개별적으로 묻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는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해주면 되겠다.

(가) 지문과 (나) 지문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나오고 섞어내는 문제가 나온다면 둘 다 읽고 풀어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 해주면 되겠다.

✓ 8번 <보기> 문제? 겁 먹지 말자!

<보기> 문제의 경우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다만, (가)와 (나)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관점의 일부와 상반된 관점을 일부 혼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점들을 찾기 위해 <보기> 조건을 문장 단위로 끊어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미리 지문에서 뽑아둔 정보를 토대로 <보기>의 내용이 어디에 매칭하는지 이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보통 친구들이 다 하는 행동일 텐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세워보자. <보기>내용 문장에 밑줄을 긋고 지문의 내용을 표시했다면, 선지에 들어갔을 때는 답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문제 번호-선지 번호'로 간략하게 해당 부분에 표시해주자.

헛갈리지 말자. 지문에 표시하는 거다.

✓ 낱말, 문맥 문제는 지문을 읽을 때 해결!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그때 해결해주는 것이 좋은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시간 단축이다. 낱말의 경우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편이라 우리가 지문에 다른 요소들에 표시해주면 묻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겨우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냈는데 오히려 9번 때문에 혼잡해서 찾아내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우직하게 읽는다고 밑줄을 벽벽 치는 친구 중 자신이 밑줄 친 낱말과 헛갈려 다른 답을 골라놓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미리미리 풀어낼 것이다.

✓ 허용 가능 시간은 오직 12~13분

12분을 제시하기까지 사흘 동안 시간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 (나) 통합지문을 이감 모의고사 및 스페셜 리뷰로 실험했고, 평균 10~12분 정도 나온다. 어려운 지문의 경우 최대 12분 43초까지 갔는데 수능 당일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최대 허용 시간은 13분이다. 즉, 11시 13분 안에는 들어와야겠다.

✓ 잠깐! 문제 풀이 순서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나도 어쩔 줄 몰라서 비문학, 문학, 선택을 3! 즉, 6가지 순서로 모두 해보았다. 개인적으로 제일 부담이 적었던 순서는 '선택 - 비문학 - 문학'이다. 비문학 한 지문 남겨두고 문학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꽤 괜찮다. 어쨌든 시험 시간에 정말 시간을 제대로 단축해주는 '자신감'이 목적이다. 선택 풀고, 독서를 미리 다 풀었는데 30분 남았다고 생각해보자. 짜릿해진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시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신감'이다.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알거라 생각한다.

단,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 같은 의미,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 제시하는 경우 유기적 연결이 안 되기 시작한다. 마치 오천피스 퍼즐 맞추기 상자 열었을 때 몰려오는 막막함이 수능장에서 느껴지기 시작한다. 용어 자체가 바뀌어 나오기보다는 뜻을 풀어 선지를 구성한다. 6월 모의고사 6번 문제도 해당 출제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가)2문단]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3문단] 이처럼 과정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제 선지를 보자.

③ 과정1과 달리 과정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이지만 「같은 의미-다른 표현」의 한 사례이다. 이제 심화 선지를 보자.

⑤ 과정3과 과정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3으로도 / **과정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가 3문단 마지막 문장을 읽고도 헛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표지를 '~에게' 전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2문단 마지막 문장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를 봐야만 ⑤가 옳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의미-다른 표현」은 '**특정 무언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할 때 정말 많이 쓰인다. 이후에 핵심 성립 조건이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 해당 핵심 내용이 있던 위치와 연결해두자. ("과정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로 바꾸어 읽자는 것)

<독해 요소별 대응 전략> [10~13, 14~17]

Comment) 여기서부터는 유형별로 특이점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독서 태도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것들만 압축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만, 그것 중에서도 개인적인 견해를 일부 추가하여 서술할 테니 자신의 독서 방법과 비교하고 무엇이 더 효율적일지 판단해서 여러 무기를 미리 만들어두기를 바란다.

✓ '독해 요소'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학생이 개념에 박스를 치거나 자신만의 표기법으로 표시한다. 근데, 정말 많은 학생이 다른 독해 요소들도 같은 표기법으로 표시해두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해당 독해 요소를 못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신이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 표시했던 하지 않았든 지금부터는 각각 구별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연습해두자.

✓ 첫 번째 요소 : 개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 다 잘하고 있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찾아내는 핵심 요소이다. 개념은 우리가 이후에 다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이 돼줄 뿐만 아니라, 문단 별 범주화를 해주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단, 정의에 과도한 밑줄 치기보다는 괄호 정도로 묶어두자. 또한 정의한 개념이 바로 뒤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리자. 필자가 개념을 정의했다는 것은 그 문단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글 전체를 통틀어 어디서든 필요하면 사용할 테니 잘 숙지해두길 바란다는 메시지와도 같다. '뭔가 읽었던 단어인데?'의 느낌을 받자마자 우리가 쳐놓은 박스들로 눈을 돌리고 선을 이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유기적 독해의 시작이다.

✓ 두 번째 요소: 관점

개인적인 추측이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10~13]은 6월, 9월을 보았을 때 관점 비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평가원은 수능 유형에 변화가 있을 때, 항상 그 변화에 대한 지표를 던져준다. 다들 쉽다고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독서론 지문을 평가원이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문항 유형 변화에 대한 지표로 던지시 던져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억측이라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다만, 평가원이 <독서론> 지문을 아무 이유 없이 출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심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단일 관점/입장은 출제되지 않는다.

6월 베카리아 지문에서도 베카리아만을 다룬 내용 같겠지만, 지문의 끝부분에 세 가지 측면이 나온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 최대한수의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위에서 세 가지 측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혼합되어 나왔는데, 지문을 끝까지 읽었던 친구라면 범주가 총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을 것이다. 베카리아의 휴머니스트 측면, 공리주의자 측면, 사회 계약론자 측면으로 나뉜다.

그러나 분류만 해놓고 바로 문제 풀이를 하면 12번 문제는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 측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는지 **역독 과정**이 필요하다. 역독할 때는 정독할 때와는 달리 유기적 연결을 목적으로 읽어주는 것이므로, 읽어오면서 범주 구분해두었던 것과 이어붙이기만 해주면 되겠다.

한편, 9월 모의평가가 쉬웠던 이유는 다 있다. 9월 [10~13] 지문 첫 문장을 보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AB 형태의 글 전개됐구나~ 판단해주자. (출처: 선터 ABPS! 주간 키스 회독하니까 말투도 선터 같아주세요!)

여기서 AB는 상반된 내용을 표시해주는 기호라 생각해주자.

☆ '관점'은 '개념'이 아니다 (표시는 명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은 박스를 쳐놓는 것이 좋다. 문제는 관점이 특정 학파나 '~주의'로 나오는 경우 개념이라 착각하고 같이 박스를 쳐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이 좋아서 해당 관점에 대한 입장이 바로 뒤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미시 건전성, 거시 건전성 지문을 떠올려보자. 각각 관련된 정책들이 한곳에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전체에 분산되어 사용된다.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박스를 쳐둔다면 대참사는 뻔한 일이다. 이때는 간단하게 동그라미 쳐두고 가자.

☆ 관점의 분류

아마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면서도 독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라 생각한다. 각 입장의 공통점 차이점 구별이다. 말이 쉽지만, 간격이 멀고 표현이 그때그때 다르면 정말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는 거시적 독해, 미시적 독해 모두 사용해서 접근해서 들어가야 한다.

문단 별로 하나의 관점이 소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혹여나 하나의 문단 안에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면, 빗금(/) 쳐가면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문단 옆에 <와 같이 크게 묶어주는 표시를 해서 어느 부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시해두자.

또한 같은 관점 내에서 여러 측면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주의하자. 특히, 어느 특정 관점이 인정하는 예외적 상황을 언급하면 선지에서 그 예외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인지 꼭 범주 단위로 맞춰 읽어주자.

<과학•기술•경제의 독해 요소 [4~9][14~17]>

Comment) 과학, 기술, 경제 영역은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정보가 밀도 높게 문장과 문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아끼기는커녕 이해조차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원래는 과학•기술•경제 영역별로 나누어 접근법을 설명하려 했으나, 수능 직전에 그 막대한 영역별 행동강령을 숙지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잘해오던 친구들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가 자주 놓치는 기본적인고도 핵심적인 독서 읽기 접근법에 대하여 담아두었다. 영역별 훈련은 스스로 지문을 읽어가며 훈련해보길 바란다.

☆ 비례•반비례도 결국 식이다

물리나 화학을 배우지 않은 친구 중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제시된 식으로부터 추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다. 가끔 과학 기술 지문을 읽다 보면, 항등식을 말로 풀어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예시를 만들어보면,

(지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용기의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이 일정하면 기체의 분자 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아마도 우리는 습관대로 기체의 분자 수와 온도에 화살표 표시를 해둘 것이다. 이제 문제의 선지를 읽어보자.

(선지) 강철용기 속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의 압력도 높아진다.

물론 위 지문과 선지에 강철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고 외부의 출입이 없다는 조건을 더 줘야 하겠으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화살표로만 해결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개념 간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표현해두고 가자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계속 가지적으로 표시해두자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틀릴 바에 5초 더 소비해서 문제를 맞추는데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머릿속으로 그 관계들이 외워진다면,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위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주자.

(비례 관계를 '='으로 처리한 것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비례 기호가 따로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에 없네요. 그냥 제 의도만 잘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압력 X 부피 = k(일정) → 기체 분자 수 = k/온도 (k는 상수)
∴ 압력 X 부피 = 기체분자 수 × 온도

결론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비례•반비례는 화살표 표시로 처리해도 좋지만, 수식 관계가 보인다면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문제를 풀 때 더 효율적이다.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 개념 간 비례•반비례는 연결될 수도 있다

(1) 에서 수식적으로 정리해두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온통 비례 반비례 관계로 이루어진 지문이 종종 있는데, 좋은 지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누가 개념 간 관계를 더 명확하게 잘 처리하느냐의 싸움이다.

예를 들어, 초반에 'A가 B에 비례한다'라고 나왔는데 후반에 'B가 C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를 "A는 B에 비례하고 C에 반비례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즉, 「A = k • B/C」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k는 상수다) 그러나 해당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각각' 이해했다면 <보기> 추론 문제에서 제대로 털릴 수 있다.

☆ 인과관계의 역방향 성립 확인

문제를 풀고 나면 알겠는데 정작 풀 때는 자주 틀리는 인과관계 선지이다. A→B인데 선지에서는 B→A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다행히, 인과관계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케이스는 위의 경우가 최선이다.

실제로 출제 가능한 모든 충분•필요•필요충분 케이스를 나열해본 결과, 위에서 제시한 A→B(지문), B→A(선지) 이외의 관계로 출제하면 사실상 세부 일치 문제라 개념 간 관계 확인 문제로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아래 예시는 올해 9월 평가원 메타버스 지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를 가지고 왔다.

(지문)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이처럼 사용자의 ~ 하지만, (← **범주 1: 사용자가 트레드밀을~**) /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술기 **동인** 변경되기도 한다. (← **범주 2: 가상 현실 속 환경 변화가 트레드밀을~**)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과연 아바타는 인공지능인가**)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와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반대가 된 것. 범주 1에서 분명히 **원인**이 **사용자**이고 결과가 **트레드밀의 변화**에 따른 아바타의 이동 방향 변화이겠다.)

내가 제시하는 확인 방법은 위와 같이 원인을 '주체'로, 결과를 '대상'으로 보고 판단하되 '→' 같이 가지적으로 표시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조사**를 보고 판단해주는 것이 확실하다.

☆ 분류는 결국 범주화의 기초

컴퓨터 폴더를 떠올리자. 우리는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고 또 만들어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찍어둔 라면 사진들을 저장해두려고 '라면' 폴더를 만들었다. 라면 말고도 볶음면 종류를 따로 찍어둔 사진들을 저장하기 위해 '볶음면' 폴더를 만들었다. 근데 폴더를 만들어두고 보니 바탕화면이 너무 산만한데? 그래서 우리는 '면'이라는 상위 폴더에 다 같이 넣기로 한다.

이것이 분류 및 범주의 기본이다.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무조건 다른 범주에 있다는 편견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같은 범주에 있다는 편견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정말 위험하다. 글의 흐름을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묶어주고 다시 풀어주는 작업이 범주화의 기본이다.

분류는 범주라는 개념 안에 속한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해주자. (엄밀한 정의는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기> 상황에 수식 처리하기

여백에 써두는 것까지는 모두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기>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겠다.

그래서 수식을 써놓을 때도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해서 최대한 지문의 해당 부분에 가깝게 써놓아야 한다. 특히 <보기>에 제시된 상황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바로바로 확인해야 한다. 평가원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보기>에 주어진 상황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출제한다. 따라서 상황별로, 조건별로 어느 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백에 써놓은 식 사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식 사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

✓ 복잡한 순서/과정/인과관계 처리하기

비례 • 반비례와는 달리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렇지만 정작 잘 풀어내는 사람은 적은 편이다.

우리가 연이어 나오는 순서/과정을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보 처리의 버거움이다.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왜 어렵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볼 도록 하자.

☆ 순서 과정에서 튀기는 이유 : 부피

순서만 간단간단하게 짧은 호흡으로 이루어진 문장들로 구성된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개념의 정의가 끼이거나 과정의 단계가 아닌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속에 숨어서 과정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순서 • 과정 문제가 왜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 때문에 어려운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① 기본적인 뼈대 문장 세팅

불이 나면 주위가 따뜻해진다.

② 주제 방향에 맞는 어휘로 대체 (주제: 연소반응)

물질이 연소하면 온도계의 측정 수치가 증가한다.

③ 세부 과정 추가

우선 산소가 충분한 곳에 물질을 주입한다. 그 다음 연소한다. 그 후 온도계를 확인한다.

④ 주제 및 개념 등 부가적인 정보 추가

연소로 인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가연성 물질을 준비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란 수소와 같이 연소 반응을 매우 활발하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 후, 조연성 물질인 산소 기체가 충분한 용기에 그 물질을 주입한다. 조연성 물질이란 연소를 돕는 물질로 가연성 물질과는 차이가 있다. 연소반응을 일으키면 전자 온도계의 측정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연소반응은 높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던 반응물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생성물로 변하면서 주위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글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다시피 부가 정보 추가 단계에서 그 부피가 정말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구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 우리가 순서 • 과정을 대하는 태도

옆 예시가 보여주는 듯이, 인과 또는 개념 정의 등의 부가 정보가 추가되면 야식 먹고 붙어나는 우리의 뱃살과 같이 글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거품이 끼있는 글 구조'라고 칭하기엔 어려운 것이, 부가 정보가 정보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문제 선지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뼈대와 살을 구별할 것이다. 뼈대는 순서 및 과정을, 살은 부가 정보겠다. 옆의 지문을 이용하여 이해해보자.

연소로 인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 **먼저 가연성 물질을 준비해야 한다.** / 가연성 물질이란 수소와 같이 연소반응을 매우 활발하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 **그 후, 조연성 물질인 산소 기체가 충분한 용기에 그 물질을 주입한다.** / 조연성 물질이란 연소를 돕는 물질로 가연성 물질과는 차이가 있다. / **이때, 연소반응이 일어나면 전자 온도계의 측정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통해 연소반응은 높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던 반응물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생성물로 변하면서 주위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윗 예시와 달리 순서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진행 과정임을 알 수 있어서 / (빛금) 잘 쳐주면서 **오직 과정에 해당하는 문장만 밑줄을 그어 주자**

✓ 17번 유형은 어렵지 않아!

단지 어려워 보이는 유형일 뿐 PCR 지문도 마찬가지였다. 17번이 막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독해의 핵심 요소들을 잘 지켜주어 개념 간 상관관계를 잘 파악했다면 답을 잘 골라낼 수 있다.

다만 영어 영역 40번 문제와는 달리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일부 끼워도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므로, 이외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 안 보이면 귀류법으로 선지를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수고했어